

유홍준 명지대 교수 21일 전남대서 특강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명지대 교수가 오는 21일 오후 5시 전남대병원 7층 강당에서 '한국문화의 뿌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에 박찬국씨



박찬국(광주서중·일고 42회) 전남대 공과대학 교수가 지난 14일 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8대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됐다.

과학기술인 소그룹협회에 나현식씨



나현식 호남대 교수(정보통신대학부)가 과학기술정보협회의 회(ASTI) 광주·전남지역 소그룹협회 회장에 선출됐다.

창업보육센터협의회장에 박성천 교수



박성천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소장(토목공학과 교수)이 최근 광주·전남 창업보육센터협의회 2011년도 회장으로 선출됐다.

밝은안과 21병원 윤길중 원장 출국



윤길중 밝은안과21병원 대표 원장이 17일 미국 백내장 굴절학회 심포지엄 참석차 출국했다.

내방

▲최경환(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씨

“고국의 지진 극복 희망의 나무 심었어요”

영산강 '희망의 숲' 나무 식재 日 이주여성 야마다 아키코씨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모두가 돕고 있으니 곧 대재앙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영산강 고수부지에서 열린 '희망의 숲' 조성 행사에 다문화 가정 대표로 참석한 야마다 아키코(山田明子·여·37)씨는 '고국인 일본의 신속한 복구와 일본에 있는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나무를 심었다.

울 초 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광산구에서 살고 있는 그녀의 고향

은 이번 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인 도호쿠(東北)지역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비교적 가까운 사이타마(埼玉) 현이다. 지난 11일 대지진 발생 후 다음날인 12일에서야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문제로 인해 일본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가족들이 걱정돼 한국으로 모시는 것도 생각했었으나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일본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어

떻게 되겠냐고 말하셨지만 방사능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언제든지 일본 가족들을 불러오며 위로해 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시댁 식구들은 아키코씨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키코씨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한국이 어려운 일을 당한 일본을 위해 가장 먼저 구조대를 파견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모금 운동에 들어가는 등 발 벗고 나서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구조대를 보내줬다며 남편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일본을 돕고 있기 때문에 고베 대지진, 한신대지진 때보다도 더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녀는 하루빨리 인근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워 직장도 구하고 친구도 사귀고 싶다고 했다.

“광주에 처음 왔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기 좋고, 사람들도 착하게 보였어요. 지금은 말이 안 돼 조금 불편하지만 1년 뒤쯤 되면 저 자신을 위해 또 광주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볼 생각입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방송PD가 기록한 '우리의 소리' 배우 이시영 "챔피언 먹었어요"

광주MBC 유행색 PD '한민족의 소리' 펴내

광주MBC 유행색(43) PD가 토종 소리꾼들의 노래와 삶을 기록한 책 '한민족의 소리를 만나다'(삼미안 펴냄)를 냈다.

유행 PD는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전국 지방방송을 돌며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리꾼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을 영상으로 담은 작업을 해왔다.

50여 명의 소리꾼이 유행 PD의 카메라를 통해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겼고, 41명의 소리꾼들의 이야기가 한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전라도와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제주도는 물론, 연해주까지 소리꾼들의 노래와 삶을 글과 사진으로 담았다.

유행 PD는 “씨가 말하라는 우리의 옛소리인데, 앞으로 한민족의 소리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앞선다”며 “수많은 사연을 갖고 살아온 소리꾼들이 얼마간 생존해 있는지 모르는 만큼 미



MBC에 입사한 후 '얼씨구 학당'을 연출했고 '강강술래'와 '굿', 'HD 영상각각 한민족의 소리' 등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2007년에는 지역 아마추어 소리꾼을 소개한 '우리동네 소리꾼을 찾아라'라는 책을 썼다.

18일 오후 7시 광주시 상무지구 CMB방송 2층 문화홀에서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의 그분들과도 만남이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 남에서 태어난 유행 PD는 대학을 마치고 1995년 광주

여배우 복서 이시영씨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7회 전국여자신인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직후 "영화도 복싱도 열심히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날 결승전 경기는 이시영의 일방적인 공세로 일관했다.

2분 4회전으로 치러진 결승전은 1회 공이 울리자마자 두 선수의 난타전이 시작되면서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회 중반에 이시영의 왼쪽 스트레이트 펀치가 성소미의 얼굴을

여자신인아마추어복싱선수권 우승



을 빼앗았다. 결국, 3회 1분 40초 만에 15대 0의 점수로 RSC 승을 거두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씨를 가르치고 있는 왕년의 스타 홍수환씨는 "이시영 선수가 어제 시합 후 서울로 가서 영화 촬영하고 밤에 안동에 내려와서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타고난 체력을 자랑하는 만큼 복서로서도 충분히 성공할 재능이라고 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농협광주본부 '교육사랑기금' 1억9천만원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17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광주교육사랑카드 기금 1억8863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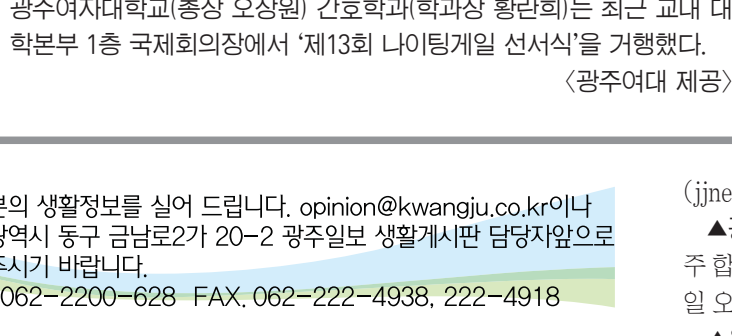
광주교육사랑카드는 농협 광주본부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04년 제휴한 카드로, 교육행정기관과 교직원들의 카드사용액 0.3%~1%를 적립해 매년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해왔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에 현지스님

현지스님(원효사 주지)이 17일 광주 무각사에서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제2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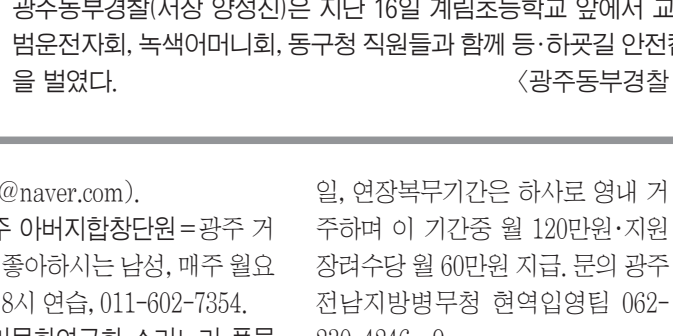
현지스님은 1971년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순천 송광사 주지, 광주불교승보회 회장을 역임했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 상임대표, 광주전남불교NGO연대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여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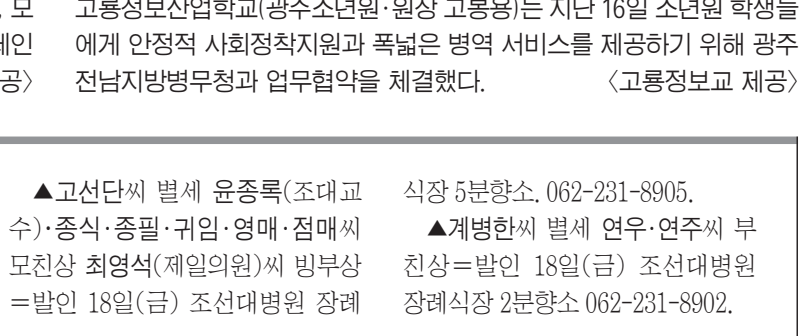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창원) 간호학과(학과장 황란희)는 최근 교내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3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했다. <광주여대 제공>

동부경찰 계림초 '등·하굣길 안전캠페인'



광주동부경찰(서장 양성진)은 지난 16일 계림초등학교 앞에서 교사,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동구청 직원들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캠페인을 벌였다. <광주동부경찰 제공>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전남방무청 협약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원장 고훈용)는 지난 16일 소년원 학생들에게 안정적 사회 정착지원과 폭넓은 병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전남지방방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정보교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jjnews@naver.com)
▲광주 아버지합창단원은 광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춤 회원 =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 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주체류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사랑모아 가족복지회 회원 = 중앙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타디움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자 = 월 3~4회 노인 돌보미·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무료) = 기초부터 현장 답사, 물권·채권 관리분석, 부동산 미래까지 및 환급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
▲유급지원병(전문병) = 중졸 이상 학력으로 해당 특기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모집 인원 1천명. 의무복무기간은 일반병과 동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人 김이택 님(남/77세)
子/子婦: 김희진/인옥, 동현/서정숙, 동욱/김수정
女/婿: 김은정/안 호
발인: 3월 18일 10시40분
장지: 장성 사삼(영락)·연락처: 250-4412
故人 심중태 님(남/86세)
子/子婦: 심갑섭/최영숙, 훈섭/김현숙, 익섭/홍향숙, 민섭/김경민, 의섭/최한순
女/婿: 심한문/정영채, 향철/김대기
발인: 3월 19일 09시00분 · 장지: 곡성 신영 · 연락처: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
삼가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 조미순 님(여/68세)
子/子婦: 김희출/문이영, 희석/최영선
女/婿: 김복순/이기형
호실 402호 · 발인: 3월 18일
장지: 영락공원 · 직통: 227-4314
故 이형욱씨 별세 유길중·현중·은희·영희·숙희·미향·가영씨 모친상 = 발인 18일(금) 조산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